영광군 'RE100 산단' 유치 청신호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80MW급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확정
재생에너지 안정 공급 기반 마련

영광군이 80메가와트(MW)급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확정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광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80MW(저장용량 480MWh)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탑솔라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준공 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12월 말이다.

80MW급 ESS는 한전 변전소에 연결돼 전력거래소 요청 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게 된다.

영광군은 대용량 ESS가 구축되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전력망 계통 연계 부담이 완화되고 전력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안정 공급 기반 구축의 핵심인 올해 1차 ESS 전국 입찰 규모는 563MW로 이 중 전남이 7곳에서 523MW를 차지했다.

영광군은 전남 전체 물량의 약 15.3%를 확보한 가운데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해 RE100 산단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전 군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군은 또 이번 사업과 연계해 탑솔라·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성과 군민 이익공유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환원 구조와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형 발전사업 기반과 지속 가능한 군 재정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전남도,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10월 예정된 '제2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비롯한 향후 정부 ESS 입찰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ESS 입찰 물량 확보는 계통포화를 해소하고, 군민과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나누는 기반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영광군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 학생들의 항일 외침 예술로 부활하다

15일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
'우리 唱(창)가를 부르게 하라'

영암군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5일 오후 3시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공연단체 '더현음재'와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예술로 재현하는 공연 '우리 唱(창)가를 부르게 하라'를 선보인다.

공연 제목은 1922년 영암보통학교 학생들이 조선어와 창가 교육을 요구하며 벌인 동맹휴학에서 따왔다. 당시 학생들은 일제의 언어 탄압에 맞서 민족혼을 지키려 '우리 창가를 부르게 하라'를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무대는 창작동요 '반달', '오빠생각', '홀로아리랑'으로 시작해 불심과 수행을 표현한 '쌍승무', 의병장 양달사의 투쟁을 그린 1인 창극 '솟아라, 장독샘', 판소리 '적벽가' 등 다채로운 작품으로 항일 정신을 담아낸다.

특히 지전춤과 살풀이를 접목한 '넋이 되어, 바람이 되어'는 독립운동가들의 혼을 위로하며, 합창곡 '대한이 살았다'와 '아름다운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신민요와 대중가요를 가야금 3중주로 재해석한 '우리 시대의 노래'가 펼쳐져 '목포의 눈물' 등 친숙한 곡들을 가야금 선율로 선사한다.

관람료는 3000원이며 현장 예매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협력 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환으로, 32명의 주민이 참여해 진행된다.

정선옥 더현음재 예술감독은 "과거 희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 정신을 오늘에 잇는 자리로, 관객들이 함께 공감하며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여행 안내·관광객 쉼터… 'Hi, Bye 완도' 오픈

'Hi, Bye 완도' 외부 모습.

완도군이 완도군관광협의회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Hi, Bye 완도'를 열었다.

'Hi, Bye 완도'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여행을 마친 관광객이 완도의 추억을 담은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기념품 판매와 관광객 쉼터, 관광 안내·이벤트 등 소통과 홍보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장보고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등 완도만의 감성을 담은 50여종의 다양한 여행 기념품을 전시·판매한다.

'Hi, Bye 완도' 이름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았을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Hi'와 완도를 떠날 때 작별 인사를 전하는 'Bye'를 결합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에는 마땅한 기념품 판매점이 없어 관광객들의 아쉬움이 컸었는데 'Hi, Bye 완도'가 그 점을 해소하고 완도 여행에서 꼭 들러봐야 할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 전복 어가 돕기 특별전
우체국쇼핑서 최대 30% 할인

해남군이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우체국쇼핑에서 '전복 어가 돕기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전남지방우정청, 전남도와 협력해 전복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복 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에서 생산된 전복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과 해남군 쿠폰, 우체국 쿠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전복 구매가 가능하다.

해남 전복은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단백질과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해 '바다의 보약'으로 불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국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해남 전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여름 보양 음식의 대표적인 전복을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구입하고 지역 어민들은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문해교육

매주 화·수요일 2시간씩 운영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발달장애인 성인들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이용인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인 문해교육은 전문 강사가 배치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에 두 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한글 읽기와 쓰기 ▲기초 계산 ▲일상생활 속 문해 활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영어 단어 익히기, 시각 읽기, 교통법규 이해, 버스 이용 방법, 화폐 계산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가며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워가고 있다.

박성남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성인 문해교육은 단순한 한글 공부가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일상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무안군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20일까지 항구축제 숏폼 공모전

목포시가 목포 항구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 목포 항구축제 숏폼 공모전'을 20일까지 개최한다.

'내 마음의 목포 항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목포 항구의 풍경·감성·사람·일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30초 이내의 세로형 영상이면 된다. 브이로그, 스케치코미디, 패러디 등 형식과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

목포 항구축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1인 1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팀 참가도 가능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한다.

출품작은 개인 SNS(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목포공모전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공개로 게시 후, 영상 파일과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창의성·작품성·대중성·활용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9월 5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장려상 1명(상금 10만원)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